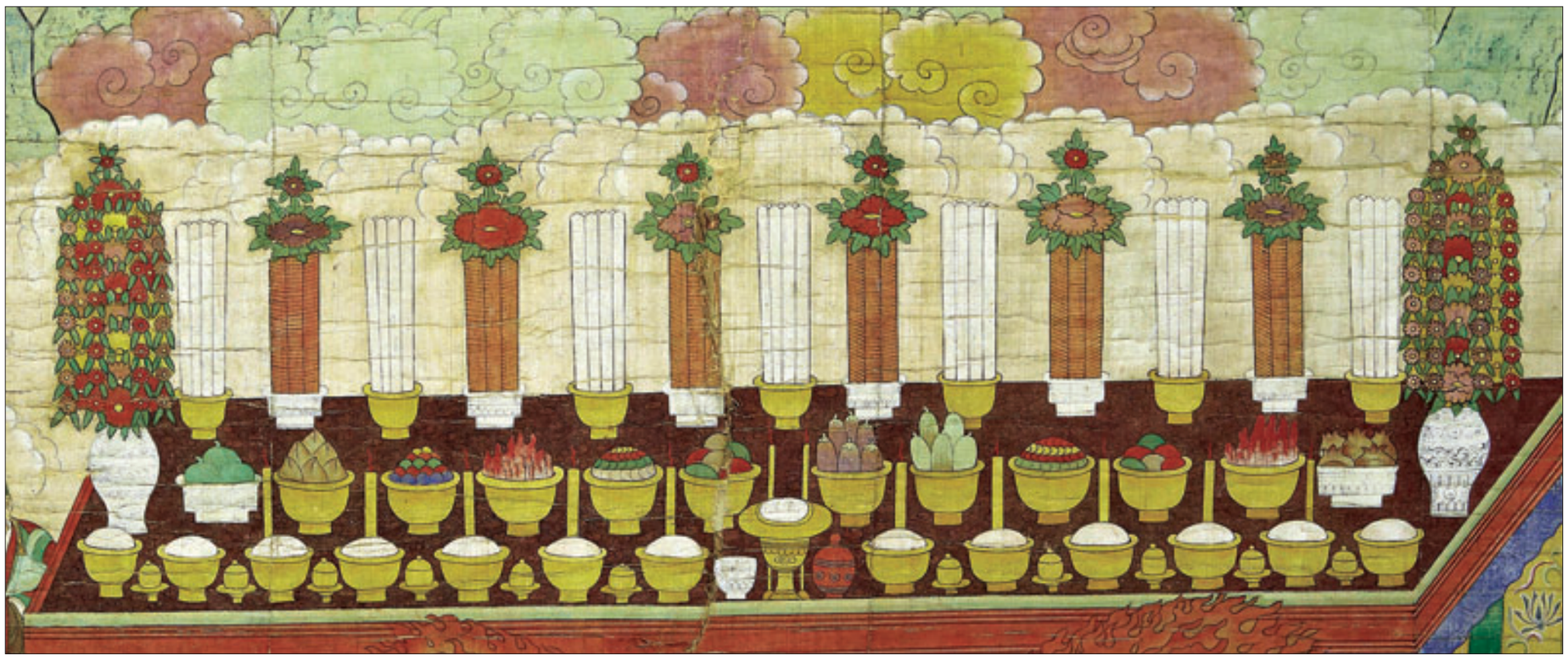
탐욕의 아귀들, '甘露 法悅' 맛보다



강소연 교수의
불화 속 스토리텔링

⑥ 목련존자 이야기 ㊦



성대하게 차려진 감로단의 모습. '쌍계사 감로탱'의 부분.

육신 벗어도 욕망 사라지지 않아
근본 무명에 노출된 존재가 '아귀'
시식단 '감로' 먹어야 해탈 가능해
감로엔 '지혜·자비'라는 상징 담겨



입에서 화염을 토하는 아귀의 모습. '보석사 감로탱'의 부분.

불교에서는 '죽는다'는 것을 '사대(四大)가 흩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대란, 지·수·화·풍(地·水·火·風)으로 육체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먼저 풍(風)에 해당하는 호흡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화(火)의 요소로 유지되었던 체온이 떨어집니다. 다음으로 수(水)의 요소가 빠져나가 몸이 빳빳하게 마릅니다. 마지막으로 지(地)에 해당하는 피부껍질, 뼈 등은 다시 유기물에서 무기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은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업(業)'입니다. 죽음을 통해 육신은 벗었지만 여전히 욕망(탐욕 또는 집착)은 사라지지 않고 강렬한 에너지 상태로 존속하게 된다는 것이 불교의 윤회관입니다.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이러한 업의 덩어리를 영가, 선가라고 부릅니다. 이를 업식(業識), 무명업장, 영식(靈識)이라고도 부릅니다. 서양에서는 이것을 영혼(soul)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몸이 없는 상태에서도 존재에 대한 강렬한 집착 또는 욕망을 갖습니다. 이러한 집착 때문에 깨달음 또는 해탈의 세계로 합일되는 것이 방해받는다고 하는군요. 업의 바다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 있는 줄로 착각하는 순간, 그것은 실제가 됩니다. 심리학자들이 무의식이라고 가르키는 것이 불교에서는 업에 해당합니다. 무의식 속에 함장 되어 있는, 살아생전 자신의 업은 어디 가지 않고 모두 다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름 아닌 스스로에게 고스란히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업의 성향에 따라 육도(六道) 중 한 곳에 태어나 다시 윤회를 반복한다는 것이 불교윤회설(佛教輪回說)의 골자입니다. 육체라는 껍데기가 벗겨지자, 그 안에 있던 업이 그대로 노출된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아귀'입니다. 모든 존재의 가장 밑바탕에는 '근본 무명'이 있습니다. 근본 무명은 '유신견(有身見)'으로 '내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욕망이 비롯되어 결국은 유형의 물질로 존재하게 됩니다.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또는 갈애)의 '움켜쥠의 힘'이 중음기간에 강렬하게 일어나는데, 이를 우리 선조들은 '아귀(餓鬼)'의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지옥서 흑암지옥으로

목련존자가 지옥에서 어머니를 구출해 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업장이 두텁다는 이야기겠지요, 목련존자는 부처님 말씀대로 보살들을 청하여 대승경전을 독송하기도 하고, 49등을 켜고 방생을 하기도 하고 신번(神幡)을 만들어 세우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그러한 법력으로 아비지옥에서 나오기는 했어도 곧바로 해탈하지 못하고, 흑암지옥으로, 아귀로, 축생으로 윤회를 거듭합니다. 우선 대지옥에서 소지옥으로, 다음에는 아귀도에서 축생도로 가게 됩니다. 부처님의 아주 특별한 가호와 신통력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영혼을 쉽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암캐가 된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 여쭈니, 부처님께서는 7월 보름날에 우란분재를 올리면 정토로 천도될 수 있다고 답하십니다. 이에 부처님 분부대로 정성스럽게 행하고 "어머니가 삿된 마음을 버리고 정도에 들게 하소서"라고 간절하게 비니, 천모가 감동하여 어머니를 영접하여 도리천궁으로 제도했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에 크게 유행한 감로도의 소의경전인 〈유가집요구아난다라니염구궤의경〉, 〈우란분경〉, 〈목련경〉을 보면 공통적으로 아난존자 또는 목련존자가 입정에 들었을 때, 아귀가 모습을 드러낸다거나 또는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유가의경〉에 나타나는 아귀의 형상을 보면, "밤 삼경이 지난 시간에 한 아귀가 나타났는데 이름은 염구(焰口)였다. 그의 몸은 추하고 말랐으며, 입에서 불을 내뿜고 목은 바늘과 같이 가늘었다. 머리는 산란히 흐트러지고 손톱과 어금니가 길어 그 모습이 가히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했다"라고 기술돼 있습니다.

또 대중적으로 가장 크게 유행한 〈우란분경〉에는 "(대목건련이) 도안(道眼)으로 세간을 관찰하니 그의 어머니는 죽어 아귀로 태어나 음식을 보지도 못하였고 피골이 상접하여 있었다. 목건련이 슬피 울며 발우에 밥을 담아 어머니께 주었더니 어머니는 발우와 밥을 보자 덥석 왼손으로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밥을 움켜쥐었다. 그러나 밥이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갑자기 불덩이로 변해 먹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련경〉에는 "목련이 슬퍼하며 앞으로 나아가다 한 떼의 아귀를 보았는데, 그들의 머리는 태산만큼 크고, 배는 수미산처럼 부른데 목구멍은 바늘과 같았다. 그들은 걸을 때마다 항상 오백채나 되는 수레가 부서지는 것 같은 소리를 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존자는 몸이 불로 활활 타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련이 밥을 얻어 지옥에 가서 어머니께 드리니 어머니가 밥을 보고 아직도 탐심을 고치지 못해 왼손으로 밥을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다른 사람을 막으면서 밥을 입속에 넣으니, 전과 같이 그 밥이 변하여 모진 불이 되었다." 또 목련이 어머니에게 항하수 물을 드리고자 하니, 부처님께서는 "너의 어머니가 물을 마시면 그 물이 뱃속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모진 불로 변해 창자를 태우고 말 것이다"라고 합니다.

성대한 감로단, '甘露'의 뜻은?

경전상의 아귀의 특징은 배의 크기가 산만하고 목구멍은 바늘 구멍만하고 또 입에 넣는 모든 것은 불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배가 크니 위장이 비대하는 의미로 먹고 싶은 탐심은 산만큼 크지만, 목구멍이 가늘어 그 탐심을 채우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탐심은 그 크기만큼 고스란히 고통이 되어 돌아옵니다. 또 염구(焰口)라는 지칭이 말해주듯이, 입에서 탐심의 불길이 나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훨훨 태워버리게 됩니다. 감로탱에는 천도 되지 못한 상태의 중생의 모습은 아귀로 표현하여 감로단 아래에 배치하였습니다.

탐욕만 남게 된 적나라한 우리 영혼의 모습입니다. 아귀는 시식단의 감로(甘露)를 받아먹어야만 해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로는 '달콤한 이슬'이란 뜻인데, 고대 인도에서는 신들이 마시는 신비로운 음료였다 합니다. 하늘이 내리는 불사약으로 이것을 마시면 불로장생을 얻고, 찬란한 빛이 되어, 신이 된다고 하는군요.

신비로운 생명의 액체로 죽은 이를 살아나게 하는 명약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무엇에도 비견할 수 없는 최고의 맛으로 '열반'을 상징합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모든 중생에게 '감로의 비(甘露法雨)가 내린다'로, 또는 '감로의 문(甘露門)을 여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법화경을 보면, '맛은 달고 마시면 죽을 일이 없다'라고 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영원한 삶'을 뜻하는 용어로 쓰였네요. 관세음보살님이 정병에 담아 중생에게 뿌려주시는 물도 '감로수'입니다. 그러니 중생의 불타는 뜨거운 번뇌를 씻어 참나를 살려내는 진리의 물, '생명수'입니다.

감로탱은 사찰의 법당 안에 영단(靈壇, 또는 영가단) 위에 걸리는데, 화면 가운데에는 감로단(또는 시식단)이 차려져 있습니다. 각양각색 과일과 떡, 어시발우에 가득담긴 밥, 갖은 나물, 청정수, 꽃, 촛불, 향 등의 공양으로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엄됩니다. 이 감로에 해당하는 온갖 음식과 진귀한 과일의 성찬(盛饌)이 가득 차려져있습니다. 꽃과 위패와 번(幡)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이 감로단을 중심으로, 위로는 여래 및 보살의 무리, 그리고 아래로는 아귀를 비롯한 고통 속 중생의 무리가 포진하게 됩니다. 그러니 감로단의 '감로'는 중생계와 법계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됩니다. 열반 또는 깨달음을 상징하는 감로. 감로에는 '지혜와 자비'라는 상징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지혜와 자비의 '감로'로, 항상 번뇌로 훨훨 타는 고통 속 중생은, 그 청량하고 시원한 자유의 맛·법열(法悅)의 맛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중앙승가대 교수·불교문화재학

현대불교신문 창간 23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약사기도 도량
천년고찰 노고산 興國寺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흥국사길 82 | TEL 02-381-7970~1 | FAX 02-381-7329
Email : heungguksa@hanmail.net | 템플스테이문의 : 02-381-7980

현대불교신문 창간 23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흥천사
사부대중일동
"흥천사에 오시면 당신의 꿈이 이루어 집니다"
서울시 성북구 흥천사길 29(돈암동)
TEL 02)929-6611
흥천사에서 운영하는 느티나무 어린이집